

응원봉, K-Pop, 유머러스 깃발... 콘서트 같았던 '탄핵시위'

현장르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이 승리했다. 만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투표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의사당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내질르면서 모두 뛰어올랐다. 시민들은 함께 온 가족과 지인과 열싸 안기도 하고 서로 처음 보는 사람과도 손을 잡고 돌며 기쁨을 나눴다. 눈물을 닦는 시민도 보였다. 해가 저물어가는 때, 기쁨에 뛰어오르는 사람들이 쥘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응원봉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빛났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 이상, 경찰의 비공식 추산 20만명이 모였다.

1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인파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9호선 국회의사당역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그 행렬은 지하철 여의도역 인근까지 이어질 정도로 끊임없이 늘어났다.

2시부터 간헐적으로 여의도역 및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행을 이어간 지하철은 3시부터는 본격적으로 멈추지 않았다. 또 여의도역을 시작으로 산업은행과 KBS 앞부터 이어진 이동통신이 먹통이 되며 물려든 인파 규모를 증명했다.

‘2030 여성’ 시민들이 응원봉이나 깃발을 흔들며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아이돌 그룹 사이니의 응원봉을 가져온 커플 이은나(35)·강한울(33)씨는 응원봉을 연신 흔들며 탄핵을 촉구했다.

이씨는 “10년 전 사이니를 좋아하던 때 산 것인데, 남자친구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샀다”며 “더는 사이니를 좋아하지 않아도 기왕 가지고 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주최측 100만명, 경찰 20만명 추산 이동통신 먹통될 정도의 인파 몰려 집회 찬송가 대신 가요 메들리 이어져 개인, 성소수자, 장애인 깃발 ‘눈길’ 주요 외신, 응원봉 시위 문화 주목 젊은층 주도 ‘민주주의의 희망’ 호평

는 것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10대 소녀들도 집회에서 목소리를 더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참여한 고등학생 이서연(18)씨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투표권은 없지만 다음 대통령 시기에 나는 대학생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 의왕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이씨의 친구들은 서로 다른 아이돌 응원봉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지지 집

회의 찬송가 대신 가요가 계속 이어지는 여의도 탄핵 지지 집회의 분위기는 흥겹고 즐거웠다.

사람들은 달리 가사가 보이는 화면 없이도 노래를 따라부르고 때로는 자유롭게 개사했다. 사람들이 듣고 흔들리는 응원봉은 아이돌 봉부터 아이스크림 컵에 전구를 채운 것과 경광봉까지 다양했다.

깃발 또한 그랬다. 여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나온 깃발보다 개개인이 만든 유머러스한 깃발이 눈에 띄었다.

‘푸바오 한국 송환 추진위원회’ 깃발을 든 플로(니네임)씨는 “깃발은 혼자 만든 것”이라며 “이전 집회를 살펴보니 사람들이 깃발을 잔뜩 들었는데 웬지 나도 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무지개색이 눈에 띄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 투쟁’ 두 깃발을 든 사람들도 있었다. 두 깃발을 작게 만들어 휠체어에 꽂은 휠체어 사용자인 장한나(46)씨는 “여기까지 오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다”며 “오히려 배려받았고, 내 휠체어에 꽂힌

깃발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 가결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은 들썩였다. 국회 밖을 지키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다. 강추위에 응원봉을 들고 시린 손을 불던 시민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뛰고 웃었다.

정훈영(53)씨는 “지금 너무 감격스럽다”며 “드디어 법치가 바로서고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음을 지었다. 이모(42)씨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혜영(48)씨는 “20년 만에 이렇게 방방 뛰는 적은 처음”이라며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던 주요 외신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준 한국 국민들의 ‘응원

봉’ 시위 문화를 집중 조명했다. 과거 ‘촛불 시위’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국민들이 이번엔 ‘응원봉’으로 축제 같은 새로운 시위 문화를 보여줬다며, 특히 20~30대 젊은층이 주도했고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AP통신은 ‘K-Pop 응원봉이 한국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시위를 장악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달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축출을 요구하는 시위에 K팝 응원봉, 크리스마스 조명, 심지어 산타클로스 복장까지 등장했다”며 “윤 대통령의 짧게 끝난 12.3(계엄)령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독특한 시위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젊은 시위대는 전통적으로 음악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K팝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점령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 시위의 새로운 트렌드를 시작했다”면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정치인과 대표들이 집회 선두에서 연설하고 이끌며 시위를 주도했지만, 이번 시위는 이전과 달리 응원봉과 케이팝을 앞세운 젊은이들이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계엄령 계략으로 탄핵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 제하 보도에서 “아이돌 동반한 부모나 연인, 노인 주민 단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는 등 시위는 정치 시위가 아니라 K팝 콘서트처럼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WP는 “탄핵 촉구 집회에 모인 군중들은 최근 몇 년간 전형적인 정치 시위보다 젊어졌다. 10대 후반과 20대 한국인들은 케이팝 콘서트에서 응원봉을 가져와 나이 든 한국인들과 함께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고 호평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AI 교과서 도입·의대증원 불확실성 고조

내년 AI 교과서 도입 계획 차질 의료계, 증원모집 정치 목소리 2026년부터 동력 잃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전격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을 두고도 의료계에서는 당장 중단하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 신입생 모집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추가 논의는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AI교과서를 ‘교과서’로 전격 도입하겠다는 교육 당국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AI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시스

디지털교과서는 더이상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돼 교과서처럼 의무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무상교육 대상도 아니게 돼 일선 학교에서 도입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간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윤 정부가 밀어붙여 온 ‘의대 증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부가 추진한 증원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는 신입생 모집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2026년부터는 증원 추진에 동력을 잃으며 ‘1년 증원’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비상계엄령 사태 이전부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출구를 열어둔 바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여야 대치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윤 정부 표 교육 정책의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ihj@

뭇 “국민께 사죄... 사회·경제적 안정 시급”

탄핵소추안 통과 후 SNS서 사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며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다”며 “현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를 넘어서 서민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현 국정 상황 지속, 내수 경제 침체, 물가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서울시 민생안정 대책반’을 꾸려 가동 중이다. 대책반은 지방행

정팀, 지역경제팀, 안전관리팀, 취약계층지원팀 총 4개팀으로 구성됐으며,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대책반장을 맡았다.

지방행정팀은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물가 안정 및 불법·사기성 행위 집중 단속, 체감경기 회복, 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소비 진작 지원을 한다.

안전관리팀은 인과사고 예방·집회 안전관리에 나서고, 취약계층지원팀은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이 시정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 서울시의회 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방송인 김여준 씨를 고발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상대 진영을 압박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3일 김여준 씨를 국회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현정 기자 hjk1@